

בִּית-ספרים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트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어디 사람을 차별하시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햇살을 비취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좋은 것을 나눠 주시고
의인과 죄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그분이 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였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과 생각이드 행동이든 뭐 하나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과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완전해지는 비결입니다.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읽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정기 당회: 낮 예배 후, 담임목사님
3.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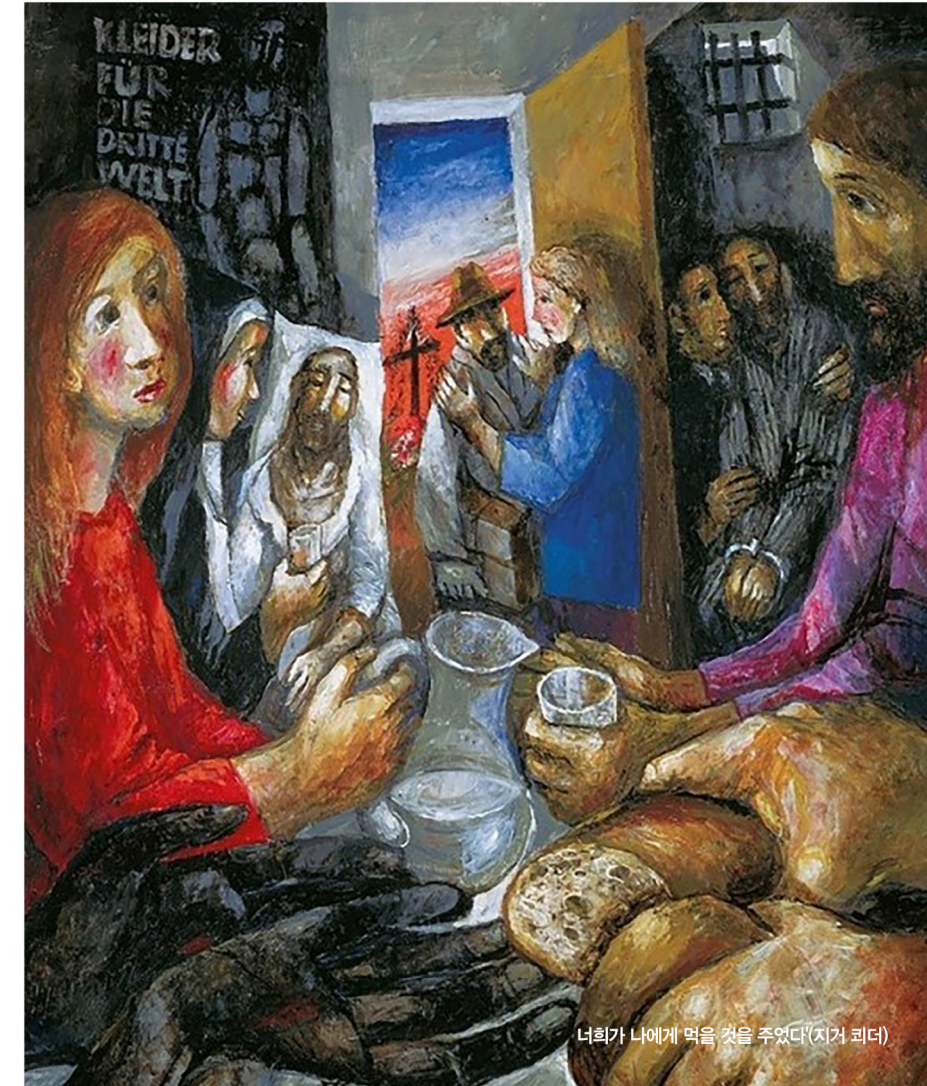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스승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봅시다.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거 10:12)

제51권 20호

2025년 5월 18일(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35:1-3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69장(4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148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389장(2절 후, 간주)
기 도	민경오 장로
*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3:33-35(신약 171쪽)
찬 양	예수님의 사랑은
말 씀 선 포	어린 자녀들아!
결단의 찬송과 기도	399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2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포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김병곤 장로

- * 5월 안내위원 : 한행자, 이영미, 정미자, 이경순
- * 5월 헌금위원 : 박종철
- * 5월 주방봉사 : 1, 7구역

생명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33-35/공동번역개정)

심 김 주 일

낮 예배 후

남녀선교회 월례회 정 한 장 소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은주 집사
성 경 봉 독	에스더 10:1-3(구약 759쪽)
말씀선포와 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이희자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22일(목)	에스더 9:20-10:3
19일(월)	에스더 6:14-7:10	23일(금)	빌립보서 1:1-11
20일(화)	에스더 8:1-17	24일(토)	빌립보서 1:12-26
21일(수)	에스더 9:1-19	25일(주일)	빌립보서 1:27-2:4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요한복음 10:22-30)

[성서일과표/사도행전 9:36-43, 시편 23:1-6, 요한계시록 7:9-17, 요한복음 10:22-30]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이날을 ‘선한 목자 주일’로 불러왔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해 왔기 때문이지요. 성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 ‘성전 봉헌절’(하누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유대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神)라는 인물이 기원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단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인물이 주도한 봉기로 유대인들은 잠시 독립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전 봉헌절이지요. 유대의 독립은 얼마 가지 못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전 보호와 예배의 자유를 얻어냈지만, 그들이 다시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희망은 메시아의 출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봉헌절은 무엇보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였지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붙잡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줄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라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해 준다.”라고 대답하였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성서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고대 유목 생활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에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매우 낭만적인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읽곤 하지만, 이는 단지 그들이 다른 목자를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누구의 양인가?’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싱그러운 풀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 마을 밖으로 나감 재비를 하고, 수천 마리의 양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양들이 우리에서 모두 나온 것을 확인한 후 목자들은 각자 다른 길로 들어서서 과중한 소리를 질러댁니다.

이때 서로 뒤섞여 있던 수천 마리의 양들은 마치 여러 갈래로 갈라진 시냇물이 바다로 뿔뿔히 들어가듯 재빠르게 분리되어 자신의 목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목자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양의 가르침이 듣기 싫어서 다른 목자를 따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이지요. 양들이 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만의 독특한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양이란 세상의 권력자나 물질 혹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께서 사랑하신 가치를 진리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사상을 따르는 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며 즐겁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성서 언어를 깊이 공부한 송민원 교수는 산상수훈이 전하는 여덟 가지 행복을 다음과 같이 풀어냅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양들을 빼앗고 죽이려는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부르심으로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저마다의 몫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고 웃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너무 슬퍼서 아픈 이를 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힘센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린다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힘이 센 사람은 다른 이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이라는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로 찾아오실 것이고 사람들은 투명한 당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그분의 가치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생명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살롱.